

봉선리 유적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풍정리 산성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다.

-후암리(厚岩里)

후암리는 2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던 마을이며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었다. 조선 초에는 서천군이었고 조선 말 서천군 시왕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갈물리, 유도리, 후동리 일부와 한산군 하북면 신리의 일부를 합쳐 후암리라 해서 서천군 시초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뒷굴이라 하는 지역은 마을 뒤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곳에는 마을 주민 이선규 씨가 작은 암자를 지어 놓고 부처를 모셔놓은 곳이 있다.

마을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안텃굴이라 한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 이괄의 난 당시 천안 군수를 지내던 사람이 이곳으로 난을 피해 와서 살게 된 것이 현재 이 마을에 사는 고성 이씨의 16대 선조라 하며, 그로 인해 고성 이씨가 많이 살았고 지금도 마을 주민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산 모양이 마치 매처럼 생겼다는 매봉재 꼭대기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유독바위라 한다. 바위의 형상이 소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유독바위, 또는 유두바위라 했다고 한다. 이 바위 아래에 있는 마을을 유동바위, 유도암이라 한다.

후동 동쪽으로 있는 지역은 용두정이라 한다.

제9장 문산면(文山面)

서천 8경중의 하나인 천방산과 문산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어 군민 휴양지로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문산면은 마한 때 비리국의 북쪽에 위치해서 숲을 이루던 곳으로 백제 때는 설림군에 속했고, 신라시대 서림군 소속이었다. 고려 말부터 많은 선비들의 낙향지로 성리학의 학자들이 많이 살았다 한다.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에 서천군에 소속되어 문산면의 활발한 발달이 이루어지던 곳이다.

행정구역으로는 두산동면이라 하여 신농 외 15개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문장면의 우산 외 10개리와 초처면의 흥현리 일부, 판산면의 둔덕리 일부, 비인군 이방면의 만덕리 일부를 통합하여 문장과 두산의 이름을 따서 문산면이라 하고 구동, 금덕, 금복, 등고, 문장, 북산, 수암, 신농, 지원, 은곡을 관할하며 서천군에 편입되었다.

문산면은 선비가 자리한 산세라 하는데, 조선 인조 때 조속(趙涑)의 선비가 산림에 묻혀 살며 끊임없는 벼슬길에의 유혹에도 굽히지 않은 행동은 산세에 따른 것이라 해석되기도 했다. 조선 중엽 유학의 내면적 충실을 지키며 이를 생활에 반영한 학자들이 운집하여 살던 곳이다.

지리적으로 마산, 시초, 판교, 종천, 부여군 옥산면을 경계로 하고 있는 중 산간 지대로 소평야를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동쪽으로 지원리가 동경 126°471', 서쪽으로 북산리가 126°421'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문장리가 북위 36°05', 북쪽으로 은곡리가 36°10'에 자리 잡고 있으며, 총 2,814ha(전 184, 답 507, 임야 1천849, 기타 274)의 면적을 갖고 있으며, 임야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12월 31

일 현재 720가구에 1천5백90명이 살고 있으며, 쌀 생산이 주업이고, 부추, 오이, 방울토마토, 표고, 양송이 등을 많이 재배하며, 다수의 농가가 축산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

- 신농리(神農里)

문산면 신농리는 천방산 자락에 있으며 문산저수지가 있어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이 마을은 도마다리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면소재지로써 각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또한 교육기관으로 문산초등학교와 시문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입구에 도마천을 연결하는 도마다리가 있는 신농리는 백제 때 설림군 소속이었고, 신라 때와 고려 때는 서림군에 속했었던 곳이다. 조선시대 서천군 두산면의 지역으로 신장군의 농소(농막)가 있었다 해서 신농소, 또는 신농이라 했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후 원동, 왕아리, 신농리와 초치면 흥현리 일부를 합해서 신농리라 하여 서천군 문산면에 편입되었으며, 3리로 나누어진다.

신농리에는 옛날 원이 살고 있어 이곳을 지나려면 시초에 있는 하마다리에서부터 말을 타고 오다가 내려서 걸어왔다고 하며, 이곳에 살던 원은 행인들의 편의를 보아주었다 해서 원동이라 했다고 전한다.

신농소에는 옛날 신장군이 개간한 전답이 있는데 이를 신장군 논이라 한다. 신농소 북쪽에는 음지뜸과 양지뜸이라는 지역이 있다.

신농소 동쪽에 있는 마을을 억만촌 또는 억밀에 라고 하는데 이 마을은 언덕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큰 농토가 되어 억만인(億萬人)을 먹여 살릴 것이라 해서 억만촌이라 하고, 언덕 아래에 있다 해서 억밀에 라고 했다고 전한다.

신농소 남쪽에 있는 지역은 해상골이라 하는데 이는 물위에 떠있는 것처럼 푸르름 위에 마을이 있다 해서 연유된 이름이다.

도마천에는 옛날 길산천으로부터 배가 들어왔다 하며, 도마다리는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힘든 일을 할 때 합창으로 ‘으이샤 펌프 도마다리 불났네’라는 협동가가 생길 정도로 유명한 다리이다.

마을에는 월경사와 수정사 등의 절이 자리 잡고 있다.

신농 2리에는 윗뜸, 아랫뜸, 강당재 등이 있는데, 주로 왜말, 또는 왜촌, 왕야 등으로 불리며, 이는 옛날 기와를 굽던 마을이라 왜촌이라 하다가 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와집이 많았다 하고 서림군 시절 서림 이씨가 이 마을에서 고을 원을 지냈다 하며, 마을이 왕성했었다고 전해진다.

마을에서 수암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강당재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곳으로 큰 길이 뚫려있다.

마을 앞에 있는 문산저수지는 왜정시대 일본 사람들이 보를 만들었던 것이 해방이 된 후 농조에 서 이를 다시 확장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천방산 뒤 바위 구멍에서 나오는 물을 장군수라 하는데, 옛날 신장군이 이 물을 먹고 장사가 되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신농리 전경

-문장리(文章里)

문장리는 1, 2, 3리로 나뉘어져 있다. 백제 때 설립군에 속했던 곳이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는 서림군에 속했으며, 1413년 조선 태종 13년에 서천군 문장면의 지역으로 문장골 또는 문장동이라 했는데, 조선시대 이곳의 이름을 따서 문장면이 생겼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득락리(得樂里)와 화리(禾里), 백양리(白楊里)의 각 일부를 합하여 문장리라 해서 서천군 문산면에 편입되었다.

문장 1리 뒤로 천방산 자락이 병풍을 이루고, 앞에는 금성산이 자리 잡고 있다. 문쟁이, 서주굴, 동아시, 갓동아시 라 일컫는 지역들이 있으며 주민들의 거의가 풍양 조씨로 구성되어 있다.

1580년 조수운(호 풍옥헌)이 문장리 서주굴에 낙향하여 문쟁이 조씨를 이루었고, 후손 조척(조수운의 장남)의 효자비가 도로 옆에 세워져 있다. 또한 3남 조숙은 서화가로 그의 그림에 새가 날아들어 떨어졌다는 매죽으로 유명하다.

옛날부터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마을로 예의범절이 뛰어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백편, 꿀편이 유명하며 한과는 오늘날까지 상품화 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마을은 조중연 전 국회의원(10, 11대)이 출생한 마을이다.

문장 2리에는 내가동과 외가동 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을을 득락리 또는 득낙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세상을 타하지 않고 마을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스스로 기꺼움이 돌아온다는 신선(神仙)의 경지에서 득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득락이 동쪽으로 화리라고 하는 곳은 마을이 기름져서 곡식이 잘 되는 마을이라 화리라 했다 하는데, 옛날에는 신선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놀다 가곤 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마을이다.

상곡, 상꽃굴 상동이라 부르는 곳에는 옛날 향교가 있어 향교골로 부르다가 이처럼 변했다 하고, 득낙이의 위쪽에 있는 마을을 윗골이라 하며, 이곳은 옛날에 선비들이 막(幕)을 짓고 소요하던 마을이라 한다.

특히 이 마을에는 명당이 많다 하는데, 마을 뒷산에 故 조중연 의원 9대조 선영이 있는 곳을 ‘당대천석지’라 하며, 마을 옆에는 ‘만대영화지’라 부르는 곳이 있다고 한다. 이 ‘당대천석지’와 ‘만대영화지’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조씨 성을 가진 지사(地師)가 딸을 여의면서 ‘당대천석지’에 묘를 쓸 것인지 ‘만대영화지’에 묘를 쓸 것인지를 물으니 가난에 한이 맺힌 그 딸이 ‘당대

천석지'를 선택하여 그 묘를 쓰고 당대에 천석군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그 아래에는 효부 며느리가 묻혀 있다 하는데, 그 며느리는 혼자 살았고, 너무나 가난하여 시아버지 제사 때 쌀이 없어 보리 한 말을 쪼개 세 되를 만들어 메를 지었다 한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아들이 지내는 제사에는 쌀밥을 해놓았으나 네 효성이 지극하여 보리로 지은 제사를 먹으러 왔다”고 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특히 이 당대천석지는 동편으로 흐르는 개천이 청룡을 나타내며, 서편에 있는 야트막한 산이 백호를 나타내고 있어 좌청룡 우백호의 명당이라고 전한다.

마을 동편에 있는 故 조중연 의원 8대 선조 묘역에는 몇 백 년 된 듯한 오래된 소나무가 묘소 쪽으로 굽어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그 훨씬 아래쪽으로 거먹바위 또는 홍암이라 부르는 바위가 있는데, 이는 바위가 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옛날 마을 앞 세네받이(현재 마을 앞에 있는 다리 부근)까지 배가 들어왔을 때 그 바위에 밧줄을 댔다고 한다. 그 주변에는 큰 미루나무가 있어서 그곳에도 밧줄을 댔다고 전해지며, 지금은 밧 가운데 있던 바위들을 옮겨다 한 곳에 모아놓고 있다.

나분배 또는 나금배라 부르는 곳은 지금도 파면 물이 나온다 하는데, 지형이 배의 형국을 닮아 마을에서 샘을 파면 배 밑창이 뚫리므로 망한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넓은 바위를 태운 배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문장 3리에 배양굴, 또는 뽕굴, 백양이라 하는 곳은 산이 백양나무 숲으로 덮였었다 하며, 다래가 많은 산이 만복을 갖다 주어 장수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뽕굴은 큰뽕굴과 작은뽕굴로 나누어져 있는데, 안뽕굴, 밧뽕굴 이라고도 한다.

백양 서쪽에 있는 산을 진터 또는 퇴퇴산 이라 한다. 산위에 옛날 군사들이 진을 쳤던 자리가 있다 해서 진터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다.

백양 동쪽으로 시초면 초현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돌고개라 하는데, 고개에 돌이 많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백양 옆으로 흐르는 냇물을 세네받이 라고 하며, 물줄기 두 개가 합쳐지는 곳으로 세 냇물이 도는 곳이라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마을에는 이밖에도 가장자리에 있어 갖땀, 마을이 처음 생길 때 산막부터 시작했다 해서 가동이라 하는 지역 등이 있다.

- 북산리(北山里)

북산리는 백제 때 설립군 이었다가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 소속이었다. 조선 초에 서천군이 되었으며, 조선 말 서천군 문장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암동, 도장리, 북향리, 우산리 일부와 판산면 둔덕리 일부를 합하여 북향과 우산의 이름을 따서 북산리라 하여 서천군 문산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북산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진다.

북산 1리는 가루골이라고 하는데, 송씨 12대조가 가로로 묘를 써서 후손이 번창하여 가루골이라고 했다 한다. 이 마을에서는 2004년도부터 앵두축제가 열리는데, 조상들이 앵두를 심어야 자손이 번창 하고 마을이 잘 살게 된다고 해서 앵두를 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마을 주변이 온통 앵두나무로 뒤덮였다. 이 지역은 돌이 많다 해서 암동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에 천용사와 용주암이 있고, 석촌리로 넘어 가는 고개에 배나무가 있다 해서 배나무고개라

일컫는 지역과, 서당이 있었다 해서 서당골이라 부르는 지역이 있다.

마을에 와우형(臥牛形)의 명당이 있다 해서 우산(牛山)이라 부르는 아래뜸과 중간에 위치한 중뜸이 있다.

마을에 면 보호수로 지정된 350여년 된 느티나무가 있고, 천방산의 맑은 정기를 받아 마을 인심이 좋으며, 주민들이 부지런 하고 위치적으로 아늑하여 전쟁을 겪으면서도 전혀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다.

북산 2리는 북향골과 도장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향골은 마을이 북쪽을 향해 자리 잡고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북향리 라고도 부르며, 도장골은 마을 뒷산에 장군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다. 이곳은 장군이 칼을 감추고 있는 형국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도장골 서쪽에 있는 마을을 한수터 라고 한다. 옛날에 찬물의 약수가 나와서 한수터 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며, 도장골 서쪽에 있는 고개 아래 들을 덩고개들이라 한다. 이는 들이 높아서 이곳에 모를 심으며 농부들이 하는 말이 천국에다 모를 심었다고 하던 지역이다.

함평 이씨와 풍양 조씨가 주로 많이 살고 있다.

- 금복리(金福里)



금복리 전경

문산면 소재지 입구에서 좌회전하여 전 시문중학교를 지나 저수지를 끼고 한창을 올라가다보면 금복리가 펼쳐져 있다.

1987년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엄청난 수해가 휩쓸고 간 흔적은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경지정리로 잘 정돈된 논두렁이 가리마를 탄 듯 가지런하다.

문산면 금복리는 백제 때 설림군에 속했다가 신라시대와 고려 때는 서림군에 속했으며, 조선 초 서천군에 소속되었었다. 조선 말에는 서천군 두산면의 지역으로 진북굴, 짐북굴 또는 금복(金福), 북계(北溪)라 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중리(中里), 평전리(平田里), 유점리(楡店里), 북계리(北溪里), 원동리(院洞里), 노오리(老五里)를 합하여 금복리(金福里)라 해서 서천군 문산면에 편입된 마을이다.

문산면 금복리는 1, 2, 3리로 나뉘어져 있다.

늦점이라 부르는 지역은 중말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옛날 이곳에 늦그릇을 만드는 늦점이 있

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유점, 유점리라고도 한다.

우라실은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마을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평밭은 평지에 자리 잡은 지역으로 마을 주변이 평평한 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평전, 평전리 라고 한다.

회사동은 부여 옥산과 인접한 월명산이 있고, 옛날 성리학이 한창 흥할 때 선비들이 모여서 예론을 논하던 자리가 있어 회사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숙인 여양 진씨 열녀문

늦점에 숙인 여양 진씨 열녀문이 있는데, 유명식 씨 처 여양 진씨는 동서간에 우애롭고 부부간에 공경하고 순종함을 근본으로 했다 한다. 남편으로 하여금 학문에 힘쓰게 하고, 남편이 병으로 위독하자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 대신 앓기를 원했는가 하면, 시부모 몰래 넓적다리 살을 빼어 남편의 회생을 도모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늦점 고개는 판교에 우시장이 성황을 이룰 때 장날인 4일이나 9일에는 한산, 마산, 화양 등 인근에서 소를 끌고 이 고개를 많이 넘어 다녔다 한다.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다 해서 중리라 하는 지역은 중말 이라고도 하는데, 쇧골, 중말, 원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복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새로 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쌍봉이라 한다. 마을 뒷산의 봉우리가 천연적으로 높이와 크기가 비슷해서 그 산을 쌍봉이라 하며, 그 아래 있는 마을이라 쌍봉이라 부른다.

중말 남쪽에 있는 마을을 노루지라 하며, 이는 지형이 노루와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중말 동쪽으로 옷밭골이라는 곳은 마을에 옛날부터 참옷 나무가 많이 있는 골짜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며, 외식동이라고도 한다.

중리 동쪽으로 행자막골이라 하는 지역은 권세를 누리되 땅을 기름지게 하고, 사람을 부릴 때는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이고, 예론을 따지기 전에 행실을 곱게 해야 한다는 행자(杏字) 풀이를 하는 은행나무의 은행잎과 같은 훈훈한 마을이라 도학자들이 정착하며, 또한 자주 드나드는 마을이었다 한다.

중리 동쪽으로 구동리로 넘어 가는 고개를 함정고개라 하는데, 이 고개에는 큰 짐승이 많아서 산 짐승을 잡느라고 함정을 파 놓았던 고개라고 전한다.

중말 남쪽에 당산이라 부르는 곳은 신당을 모시던 곳이 있었다 해서 당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쇠골은 중말 북쪽 끝 골짜기에 위치해 있으며, 옛날에 쇠(금)가 많이 나온 골짜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원당은 마을 동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원당(院堂)이 있었던 마을이라 한다.

마을에는 몇 백 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었으나 몇 년 전 한그루가 부러지고 지금은 금복고 회로 올라가는 입구 쪽에 한 그루만 남아있다.

북계는 말뚝구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진북굴, 짐북굴, 금북이라고도 하는데 계곡이 천연적으로 자연미를 되살려 아홉 고개를 넘듯 부지런한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전해진다. 구비치는 계곡마다 가을이면 황금빛인데, 그 안에 조용히 자리한 마을이며 땅이 기름지다 하여 진북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다.

북계 북쪽에는 내 건너라 부르는 지역이 있다. 이곳에는 대나무 숲이 있는데, 옛날에 대가 우거져서 산짐승과 호랑이가 살았다고 전한다.

북계 서쪽으로 떠깡바위 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바위 모양이 뚜껑을 씌워 놓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자식을 못 낳는 아낙네들이 옛날에 공을 들이던 바위라 한다.

북계 북쪽으로 난 길을 주막 앞이라 하는데, 옛날 오랜 세월을 두고 주막이 있었다 해서 주막 앞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쌍으로 정자나무가 서 있다 해서 쌍 주막 앞이라고도 한다.

마을에 옷샘이 있는데, 물이 매우 차서 옷오른데 신통하다 하여 피부병 환자들이 즐겨 찾던 샘이다.

북계 동쪽에서 쌍봉과 수암리로 가는 모퉁이가 있는데 이 모퉁이를 말뚝구래 라고 한다. 옛날에 말이 뒹굴었다 해서 말뚝구래 라고 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수암리(水岩里)

수암리는 천방산 자락의 아늑한 곳에 문산저수지를 바라보고 있는 마을이다.

백제 때 설림군이었던 지역으로,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에 속했었다. 조선 초 서천군이었고 조선 말 서천군 두산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 개편 시 건암리, 정수리, 유망리 일부를 합하여 정수와 건암의 이름을 따서 수암리라 하여 서천군 문산면에 편입되었다. 수암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진다.

1리는 마을 중앙에 물맛이 좋고 가뭄을 타지 않는 샘물이 있어 정수마을이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은 충남도 문화재자료 129호로 지정된 4층 석탑이 있어 탑골 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고, 응달진 곳에 있다 해서 음지뜸,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윗골이 있다.

독피 또는 독매는 정수골 북쪽에 있으며, 마을 입구에 알과 같은 산이 있어서 알래봉이라 하며, 독매는 알과 같이 따로 있는 산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마을 뒤에는 큰골과 봉림산이 있는데 비봉포란형의 명당이 있다하여 풍수지리사 들이 다녀가기도 한다. 천방산 북쪽에 있는 큰골의 북쪽 산중턱과 위쪽에 절터가 있는데, 큰 바위로 성벽과 같이 쌓아 올린 것으로 보아 규모가 상당히 큰절이었던 듯하다.

큰골 남쪽 산중턱에는 굴이 있는데 입구는 한사람이 겨우 엮드려 들어가면 안쪽은 방과 같이 넓고, 그곳 바위에서 솟아나는 약수는 효험이 좋아 그 물로 영사를 제조하여 환자를 치료하면 특효가 있었다 하며, 요즘도 천방산과 봉림산에 임도가 생기면서 외지인들이 그 약수를 찾고 있다.

수암 2리는 건암과 윗골로 구성되어 있으며, 옛날에는 부촌이었으나 마을 앞에 저수지가 생기면서 농지를 잃어 지금은 작은 마을로 변했다.

건암은 마을 앞에 큰 바위가 있어 이 바위를 선바위라고 불렀는데 이 바위로 인해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윗골은 산모퉁이를 돌아 한참을 올라가면 몇 집이 따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산속에 흥덕천이라는 웅달샘이 있어 약샘이라 부르며, 물맛이 좋아 주민들이 이용했었으나 지금은 수풀이 우거져 들어가지 못하고 인적이 끊긴지 오래다.



수암리 전경

- 지원리(支院里)

문산면의 제2 소재지라 할 수 있는 지원리는 옛날에 건암서원이 있었고, 현재 청덕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유명한 효자가 났다는 유서 깊은 마을이다.

백제 때는 설림군 이었다가 신라와 고려시대 서림군에 속했던 지역이다. 조선 초 서천군이었다가 조선 말 서천군 두산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팔지리, 서원리, 구변리, 유립리와 시왕면의 후동리 각 일부를 합하여 팔지와 서원의 이름을 따서 지원리라 하여 서천군 문산면에 편입되었다. 지원리는 1리와 2리로 나누어진다.

1리에는 좌수피 서쪽 골짜기로 지름실 이라는 지역이 있다. 이는 마을에 괘등형(卦燈形)의 명당이 있다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으며, 유곡, 유곡리, 유립, 유립리 라고도 부른다.

명곡이라 일컫는 지역은 옛날 효자 한 사람이 부친상을 당하여 마을 뒷산에 묘를 쓴 후 3년 동안 여막을 짓고 매일 묘 앞에서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마을을 진동시켰다 해서 명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한다.

좌수피는 옛날 좌수 한 사람이 권세를 누리고 살다 죽은 마을이라 하는데, 그는 좋은 일도 많이 했으며, 그의 무덤 옆자리가 명당자리라 하여 풍수지리사들이 자주 찾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한다.

지원 2리는 태봉산 아래 양지 녘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난곡이라고도 한다. 싹바탕이, 서팔지, 여

술로 구성되어 있다.

난곡은 마치 신선의 난 잎 같다 하며, 영켜도 곧바로 뺨는 난 잎처럼 생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 전해지고, 또한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놀다 가곤 했다는 곳이다.

쇳바탕이는 쇳이 많은 마을이라 붙여진 이름이며, 칠성바위라 부르는 지역은 일곱 개의 고인돌이 있는 곳이다.

서팔지는 마을 옆 안산을 넘어 서면 마산면 팔지 마을이 있어 그곳과 연계하여 서쪽에 있는 팔지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여술은 옛날 여우가 많이 있었다 하여 여수울 이라 부르던 마을인데, 변하여 여술이 되었다고 전한다.

태봉산 아래에는 그릇을 굽던 곳이 있다 해서 증굴 이라 하는 곳이 있고, 증굴 곁에는 백토가 나오는 백토굴이 있는데, 지금도 파보면 흰 흙이 나오며 남포 백씨 종산으로 되어 있다.

태봉산은 옛날 싸움터였다 하며, 산에 오르면 계단식으로 편편한 곳이 있어 인근 학교와 교회 등의 소풍지로 이용 되었다.

안산은 청주 한씨 종산이며 대감 산소라 부르는 산소가 있다.

마을 앞 느티나무는 해방 되던 해 나무가 넘어져 그것을 마을 주민들이 베어 세 집이 나누어 절구를 만들었는데, 세 집 모두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지금 서 있는 나무는 그 곁순이 자란 것이라 한다.



지원리 전경

-구동리(九洞里)

구동리는 백제 때 설림군이었고,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서림군의 지역이었다. 조선 초 서천군 소속이었다가 조선 말 서천군 두산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내동리, 구면리를 합하여 구동리라 해서 서천군 문산면에 편입되었다.

450여년 된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켜주고, 쌍봉산이 굽어보고 있는 구동리는 마을에 들어서면 첫 동네로 고라실이 있다. 이는 골짜기에 마을이 있다 해서 그렇게 불렀다 하며, 찬샘이 있다 해서 참새굴 또는 삼삿굴이라 부르는 곳이 있다.

가늘게 구성된 가장골이라 부르는 지역과, 정자나무가 있는 중뚝, 지형이 소라처럼 생겼다 해서 소라티 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다. 또한 첫 번째 돌아오는 산모퉁이가 다섯으로 되어 있다 해서 다섯

모롱이라 부르는 지역도 있다.

마을 앞 느티나무는 잎이 피고 지는데 따라 흥풍을 점친다고 전해지며, 가뭄을 미리 예견해 준다 고도 한다.

가능골 앞에 있는 쌍봉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쌍봉산에 父子가 나무하러 갔는데 아들이 먼저 올라가고 아버지가 뒤따라 올라갔다. 그런데 위에서 큰 돌이 굴러 내려오니 아들이 “아버지 돌 굴러가유.”하고 말했으나 그 말이 느려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돌에 맞아 숨졌다는 내용이다. 이는 충청도의 느린 언어 특색을 일컬을 때 자주 비유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젯말이라 일컫는 지역은 고개 아래에 마을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그 동쪽으로 황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대동리라고도 하며, 큰 마을이라 황골, 대동이라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감나무골 서쪽에 있는 산을 장구봉이라 한다. 이는 산이 장구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나주밤나무들은 옛날에 밤나무가 많이 서 있는 들이라서 나주밤나무들 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구동리 마을 전경

-은곡리(恩谷里)

은곡리는 백제 때 설림군이었고 신라와 고려시대 서림군에 속했었다. 조선 초 서천군이었다가 조선 말 서천군 두산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은적리와 대곡리를 합해서 은곡리라 하여 서천군 문산면이 된 지역이다.

평해 구씨가 90%로 집성을 이루고 있는 이 마을은 큰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대곡리, 한살이라고 하는데, 은곡리에는 회관 앞 논 가운데에 2기의 고인돌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인돌을 대명바위라고 한다. 이는 바위를 깨려고 정을 대고 치니 바위가 울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실은 바위 밑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는 소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윗 부분을 보면 깨려고 한 흔적이 남아있다. 마을에서 보를 막으려고 바위를 떼어내니까 천둥이 심하게 울어서 다시 갖다 놓았다고 하는 결바위가 붙어있다. 이 두 고인돌 사이에는 건융 13년(1748)에 세웠다는 대명고중수비가 논 가운데 서 있다.

이 외에도 3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파괴되었으며, 지원리 쪽에 있는 것과 합치면 모두 일곱 개로 칠성바위라고도 불렀다.

은곡리는 부여군 옥산면과 인접지역이며, 부여군 홍산과도 4km 남짓밖에 안되어 홍산 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문산면에서 담배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옛날 박씨가 이룩한 마을이라서 박상골이라 부르는 동남쪽으로 황소논이라는 논이 있는데, 이는 옛날에 이 논을 황소를 주고 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은적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텃골 이라 하는데,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골짜기라서 텃골 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이 골짜기에 명당자리가 있다고 한다.

은적골은 은적사라는 절이 있었다 해서 부르게 된 이름이고, 옷말, 양지편 등이 있다.

양지편 북쪽으로 있는 모퉁이를 서당모랭이라 하는데, 그 모퉁이에 서당이 있어 서생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한다.

분토틀은 분토가 많이 나오는 골짜기라 하고 감나무가 많아 감나무골 이라는 지역이 있다. 은적으로 가는 모퉁이에는 검은 바위가 있는데, 이곳을 검은모탱이라 하다가 변하여 검바모탱이라 부른다.



은곡리 전경

제10장 판교면(板橋面)

판교면은 서천군 북부에 위치하여 부여군 옥산면, 보령시 미산면과 인접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 중 67%가 임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간지역이다. 그러나 국도 4호선과 장항선 철도가 지역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홍림저수지와 상좌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농업을 주로 하는 면으로 도토리묵과 표고버섯, 포도 등의 특산물이 농업소득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는 서천군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장뇌삼 생산지로도 각광을